

금요 수필

구름은 고향이 없다

길을 가다 종종걸음으로 주인을 따라가는 강아지를 봤다. 가는 곳은 어디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고 가는가? 라는 궁금함이 생겼다. 앞으로 좌우로 잘도 따라간다. 따라가지만 앞서기도 하며 익숙한 길을 가듯 간다. 우리 인생도 강아지처럼 걷는 게 아닌가 싶다. 종착역은 어디고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모른다. 좌우도 살피면서 앞으로만 종종걸음으로 나아간다. 낯선 길이고 처음 걷는 길이지만 잘 아는 것처럼 걸어나간다. 강아지가 걸음을 견우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나도 따라 하늘을 쳐다보았다. 청명한 하늘에 하얀 봉개구름이 높이 떠 현현히 흐르고 있다.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만나면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보이게 유유히 떠간다. 떠가는 구름이 인생을 닮아 보인다. 구름의 생성이 여윌한데 우리 인생의 흐름도 그와 같은 듯하다. 중국 북송 시대의 시인이자 분인이어서 서예가인 동파 소식(蘇軾)의 시구 '가는 구름과 흐르는 물은 애초에 정해진 방향이 없다는 행운유수(行雲流水). 초구정실(初無定實)'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렇다. 떠가는 구름과 흐르는 물은 애초에 정해진 방향이 없다. 고정된 근거지나 출신을 가지지 않은 구름이나 불처럼, 인생 역시 정해진 길이나 한정된 운명이 없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시 구절이다.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은 돌아간 고향이 없다. 흩어지고 쓰러지며 무는 모든 곳이 자신의 정주장일 뿐이다. 구름은 단 한 번도 한 자리에 뿌리내린 적이 없다. 구름은 애초에 고향이 없다. 정확히 어디서 생성되었는지 모르겠다. 머무는 곳 보아도 바람이 부는 대로 흩어지고, 그 자리를 끝내 지키지 못한다. 바람은 제 발로 걷는 존재지만, 구름은 바람에 밀려 흐르는 존재다. 어느 하늘에 떠 있는, 그곳이 고향이라 부를 수 없다는 점에서 구름은 늘 방랑자요 유랑자이다.

구름은 어느 곳에 가도 그곳의 공기를 뜬다. 바다 위를 지나면 짙기운을, 산 위를 넘으면 짙은 백새를 머금는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보양만 바뀔 뿐, 본질은 불의 속열이다. 사람도 그렇다. 고향을 떠나 세상을 돌며 많은 공기를 마시지만, 그 안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본질이 낡는 풍경



석인수 수필가

이 바뀔 뿐이다. 구름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흐른다. 바람이 센 날엔 급히 떠나 흐르고, 잔잔한 날엔 오래 머문다. 인생도 그와 같다. 어느 시절엔 때릴리 못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어느 시기에 잠시 정착해 숨을 쉰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흐르느냐.

나는 종종 삶이 구름과 닮았다고 느낀다. 돌을 붙일 단편의 거저를 가졌을 때도 마음은 늘 어디론가 흘러가고, 희망은 바람결에 따라 모양을 바꾼다. 오래 머문다는 것은 어쩌면 생각일 뿐, 우리 인생도 결국 변화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 흘러감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라는 모양을 지키려 애쓰지만, 그 순간 달라지는 빛의 꺾이 우리를 다시금 새로이 그린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구름은 운명을 받아들여듯 흘러간다. 머물고 싶어도 머무를 수 없는, 그 체념 속의 고통만이 나는 좋다. 인간의 욕심은 구름을 땅에 붙들어 두려 하지만, 구름은 언제나 그것을 거절한다. 떠도는 구름의 운명은 불안하지만 동시에 자유롭다. 고향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고, 다시 돌아와야 할 집도 없다.

맑은 날에는 고향이 그리웠다. 떠나는 곳이 나를 기억해주길 바라고, 내가 돌아가 그 자리에 서길 꿈꾸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나는 구름의 마음을 조금씩 알았다. 돌아간 곳보다 머무는 순간이 더 소중한다는 것. 정확히나 흘러감이 더 정직하다는 것을. 그러므로만 살아가던 마음이 조금씩 바람을 품게 되었다. 고향의 백새는 그림고 애뜻하지만, 내 삶은 그 마음을 모르는 체한다.

구름은 고향이 없지만, 세상 전부 그 길이다. 떠도는 건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고, 흘러가는 건 잊힘이 아니라 순환이다. 구름의 생은

끊임없는 이동 속에서 완성된다. 나 또한 연평균 이름 없이 흩날리지만, 살아 있는 동안은 매 순간의 하늘을 바라보며 인생길 위에서 나를 완성해가려고 한다.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나는 구름을 본다. 구름은 언제나 제멋대로 흐른다. 어느 날은 산천리를 감싸며 느릿하게 흘러가고, 어느 날은 바람을 타고 휘돌아간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거꾸르지 않는다. 잠시 거근다 싶으면 남방 나뭇잎, 나뭇잎 배경의 하늘도 붉어진다. 그 유랑의 생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닮았다. 잠시라도 같은 모양, 한 자레로 변하지 못한다. 구름이나 우리 인생도 변화가 곧 삶이다.

짧은 시절, 나는 고향을 떠나 도시로 왔다. 그때의 마음은 막 피어나 구름 한 조각 같았다. 실패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내 인생의 바탕이 나를 이대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도시는 낯설었다.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 구름은 내 마음의 고향이었다.

시간이 흘러 거대한 흰 서리가 내려앉았다. 오랜 세월을 일제 찾으며 살았다. 어느새 인생의 저녁 무렵에 서서 하늘을 보니, 여전히 구름은 떠가고 있다. 낯선 것은 나였다. 구름은 변함없이 흘러는데, 나는 그 구름을 따라 흐르지 못하고 땅에 묶인 삶을 살았다. 사람은 누구나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결국, 내리지 못한다. 구름도 마찬가지다. 흘러내려가 고이고, 사라졌다가 다시 태어난다. 이휘저한의 연속일 뿐이다. 한편으로는 그 자유가 부럽기도 하고, 그 외로움이 애잔하기도 하다.

고향이란 물리적인 곳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구름에서 배운다. 우리 인생도 구름처럼,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와 앞으로의 여정에 집중하고 있다. 목적지보다는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심도 알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서서 용기가 중요함을 구름이 가는 길에서 배운다. 인생에 정해진 길이란 없다. 오직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일 뿐이다.

그리운이 갖든 곳이면 어디든 잠시 고향이 된다. 구름이 머무는 산마루, 스치 지나가는 도시의 하늘, 혹은 마음속 이단가의 기억 한 조각. 그 모든 곳이 구름의 고향이자 나의 고향이다.

구름과 물과 바다가 고향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어쩌면 세월은 흘러갔고 구름은 소멸할 뿐이다. 새는 날면서 뒤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나그네 인생도 갈 길이 남아 있을 때 행복한 법이다. 가지 않은 길이란 갈 수 없었던 길이라 아니라 가기가 두려워 포기한 길이다.

누구나 인생은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살고 싶지만, 돌아보면 파란바탕한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답다. 순탄만 했다면 삶이 재미가 없고 매력도 없다. 그래서 고통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지도 같다.

어쩌면 참된 행복이란 목적지에 있지 않고 목적지를 가는 여정에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 나는 그 여정의 한 길목에서 있다.

개 순간 내구는 곳이 곧 새로운 집이 된다. 떠날 때 창자를 떠나고, 나 또한 언제가, 구름처럼 내 마음의 방향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고 싶다.

돌아갈 곳이 없어도 괜찮다. 그리움이 흐르는 그 자리가 곧 나의 오늘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설

차세대 메모리 공동개발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팩토리 구축을 위한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고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측면에서 장기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인프라 로드맵에 맞춰 장기적으로 메모리를 지속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퍼스널 AI와 퍼지컬 AI 등 엔비디아가 개척하는 AI 분야 신시장에도 진출하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배라 루빈 AI 슈퍼컴퓨터, 배라 CPU 등 각종 플랫폼용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또,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고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트윈 환경을 기존 제조시스템과 연계해 AI가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제조 의사 결정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마지막 날 첫 일정으로 SK 그룹을 찾은 펜스환 CEO는 SK 최대원 회장과 회동 직후 "SK와 파트너십이 없었다면 AI산업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며 SK는 앞으로도 가장 큰 메모리 파트너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다음 단계인 퍼지컬 AI와 로보틱스에 가장 잘 준비된 국가"라고 말했다.

최대원 회장은 "그동안의 많은 협력은 주로 메모리 협력이었지만 지금부터는 협력을 그룹 차원으로 더 높일 것"이라 "비대 AI 팩토리를 엔비디아와 함께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당대회 앞둔 민주당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의 3파전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론을 두고 갈등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비당권파 의원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연주 의원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최고위원 사퇴의 뜻을 밝혔다.

송영길 전 대표는 선거 직후인 지난 4일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언급했고, 김민석 총리도 "국정 기대치가 선

거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점에서 분다면 충분치 못하다. 지금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비당권파 비판에 정청래대인 사들도 반박에 나섰다. 최민희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이연주 의원을 향해 "이러면 곤란하고 책임 있게 지도부로서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며 "추위겨야 소나무와 전나무의 결실을 알게 된다. 김한길·인철수식은 진부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5선의 박지원 의원은 "당권 경쟁이 과열로 치달고 있고, 솔직히 너무 큰 열려가 염속한다"며 "피터지는 전당대회는 불을 보듯 대권투쟁으로 이어지고 민생, 경제, 내란 청산 3대 개혁은 실종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주매일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